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기
- 대림 시기 동안 대림초를 가지고 기도, 선행 실천하기

(백)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2023. 1. 1.)

* 오늘 전례

교회는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431년)이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이 축일은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보편 교회의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지내고 있다. 또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 첫날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냅니다. 올해도 한결같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민수기 6,22-27):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24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25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26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27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 제2독서(사도바오로 갈라티아서 4,4-7): 형제 여러분,
4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5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6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에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7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 복음(루카 2,16-21):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16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17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18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20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21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화답송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복의 샘이신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청하오니,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교회가 언제나 나 주님의 은총을 전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그리스도인들과 이웃 종교인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저마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3.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자녀 출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윤리적인 보조 생식술의 유혹을 물리치며, 생명 존중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역 교회의 시노드 여정을 걷고 있는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서로서로 마음을 모으고 모든 이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식별하고 협의하는 시노드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 성사를 받고 비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 입당 : 239(거룩한 어머니)
- 봉헌 : 511(미약하온 우리 제물)
512(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 : 496(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172(그리스도의 영혼)
- 파견 : 44(평화를 주옵소서)
- 특송 : Ave maria - L. Luzzi (이미영 글라라)

공지 사항

♣ 2022년 NATALE 성당 나눔 행사 협찬 명단

1. 이민찬 비오 형제님
2. 서인복 리노 형제님
3. 정명용 미켈레 형제님
4. 안희관 요셉 형제님
5. 임근영 사무엘 형제님
6. 정상현 안토니오 형제님
7. 이준서 다니엘 형제님
8. 허희숙 마리아 자매님
9. 엄기용 안토니오 형제님
10. 김효경 리다 자매님
11. 이승원 비오 형제님
12. 김재의 미켈레 형제님
13. 강한 프란체스코 형제님
14. 김산영 올리아 자매님
15. 이승준 다니엘 형제님
16. 변의용 베네딕토

많은 분들의 협찬 덕분에 풍성한 NATALE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협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신부님, 총회장님, 총무님, 성모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인사드립니다.

♣ 이번 주 모임

- 청년구역 모임(오늘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오늘(1일)	다음 주일(8일)
제1독서	안희관 요셉	변의용 베네딕토
제2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구희선 스텔라
복사	안서현 안젤라 /안태오 마태오	엄소연 라파엘라 /엄채운 엘리사벳
계단·화장실	안희관 요셉	변의용 베네딕토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구유경배예물 € 601.41(24일), • 교무금 €1500(24일)
- 봉헌금 €215.8(25일), • 교무금 €1160(25일)